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

평신도 기도주간

6.1(월) ~ 6.6(토)

6.1(월) 부르심
6.2(화) 옷을 벗음
6.3(수) 마귀 부인 否認
6.4(목) 그리스도를 좇음
6.5(금) 성령
6.6(토) 은혜로 맛보는
거룩한 삶



제37회

2015. 6. 7

평신도주일

■ 주관_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 주최_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제37회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I. 평신도주일에 즈음하여 _안승철 감독	2
II. 평신도주일의 의의 _송윤면 목사	4
III. 주제 해설 _이찬석 교수	6
IV. 설교자료 _김영복 목사	14
V. 예배자료	
1. 평신도 기도주간 묵상문 _나형석 교수	19
2. 예배문	26
VI.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행사자료	28
VII.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31
VIII. 생명나눔 운동	35
IX. 감리교회 착한소비 3·6·5 운동	39
X. 교인생활수칙	43
XI. 첨부자료	44

I 평신도주일에 즈음하여

안승철 감독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신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관계하고 계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 교회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같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침체를 극복할 방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 평신도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감리교회가 침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과거의 찬란했던 부흥의 시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기 위해서, 평신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평신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평신도가 선교의 열정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받는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아픈 자기반성을 거친 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옛날의 영광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침체된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평신도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신 능력을 확신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평신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저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과 노력으로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평신도국에서는 2015년 주제를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으로 정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오늘의 혁신도, 교회를 위한 내일의 희망도 모두 평신도 여러분의 손으로만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집이 귀하게 사용되어 교회를 위한 혁신과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윤면 목사

사회평신도국 총무 직무대리



2015년 제37회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5,800 교회와 150만 성도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979년 3월 총회 결의에 따라 매년 6월 첫째 주일과 그 한 주간을 평신도기 도주간으로 지키고 있으며, 올해로 제37회 평신도주일(6월 7일)을 맞이합니다.

감리회 교회력에 평신도주일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해 52주 주일 모두가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일임에도 특별히 6월 첫째주일을 평신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진정한 감리교회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평신도주일을 성수하여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삶의 변화를 통해 교회의 성장에 동력이 되고, 시대적 소명에 책임을 감당하여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감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품격을 높이는 데 평신도주일을 지키는 의의가 있습니다.

2015년 제37회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에는 평신도 주간 성구와 기도문 그리고 예배문과 평신도주일 성수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6월 1일(월)~6월 6일(토)은 '평신도 기도주간'으로 지켜주시고, 6월 7일(주일)은 평신도들이 주관하는 '평신도주일' 예배로 드리길 바랍니다.

감리회 주제에 맞추어 2015년 사회평신도국도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평신도 사역의 시대로,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변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였는데, 평신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와 세상에 희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해 협력해 주시는 감독님과 감리사님,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사회평신도부 총무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

예레미야 29:11

이찬석 목사

협성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바로 밑에서 신음하며 노예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을 탈출시켜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다. 앞으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보전하며, 영원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일 것으로 기대되는 분이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계약을 통하여 자신들을 선택 받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폐쇄된 혈통적·종교적 공동체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에서 야훼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으로 등장한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 계약과 모순을 일으킨다. “너희는 그 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라고 말씀하신다. 유배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으라고 말씀하신다. 더 나아가서 아들들도 장가 보내고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아들딸을 낳고,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한마디로 유배지 바벨론에서 나그네처럼 살지 말고, 등지를 틀

고, 정착하여 그곳에서 변성하라고 하신다.

이스라엘과 특별한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힘에 겨운 삶일지라도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민족적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자유의 몸이 되면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야만 할 것 같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뒤집는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이 변영하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기도는 바벨론이 가능한 빨리 멸망하여 자유의 몸이 되어 고국에 돌아가게 해 달라는 기도이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반대의 기도를 요구를 하신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변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 하여라.” 바벨론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멸망과 포로라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잔혹해 보인다.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1960년대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신학이 등장하였다. 그 신학은 ‘신 죽음의 신학’(Theology of Death of God)이다. 이 신학은 1960년대 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학으로, 하나님 부재(不在)의 경험과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sus)에 대한 재발견을 근거로 시작되었다. 1966년 4월 8일자 타임지는 “하나님은 죽었는가?”를 커버스토리로 하여 이 ‘신 죽음의 신학’을 소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신 죽음의 신학을 전개하였던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인 알타이저(T. J. J. Altizer)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와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실존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와 불의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침묵’을 떠올리면서 신의

존재에 물음표를 던진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의 지평은 시간적으로 주로 ‘현실’에만 갇혀 있음을 보게 된다.

신 죽음의 신학자들은 전통적 기독교가 고백해 온 하나님과 오늘의 현실의 불일치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한다. 실제로 현존하는 고난과 불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의문을 제기한다. 현존하는 고난과 불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도 물음표를 던진다. 그러나 신 죽음의 신학자들의 시간적 시점은 ‘오늘’에만 집중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오늘 현실의 지평에서만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의 부조리한 현실과 하나님의 존재는 모순을 일으킨다.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의 지평에서만 읽어간다면,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의 현장에서 침묵하였으므로 십자가의 도(道)는 어리석은 것이다. 신 죽음의 신학이 오늘의 현실에서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신의 침묵, 신의 부재, 신의 죽음을 선언하였다. 신 죽음의 신학자들과 다르게 내일·미래의 지평에서 하나님을 읽어가려고 한 사람은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이다. 몰트만의 신학은 신 죽음의 신학의 등장으로 충격을 받은 신학을 ‘희망’과 ‘종말’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안내한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1926년에 출생한 몰트만은 18세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가 포로로 잡혀 노턴 캠프(Norton-Camp)라는 포로수용소에서 3년 동안(1945~1948) 포로생활을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지 생활을 하듯이, 몰트만도 포로수용소에서 유배지 생활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침묵’ ‘신의 부재’를 체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몰트만은 희망을 간직한 사람이 생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체험하였다. 몰트만은 이러한 체험이 뿌리경험이 되어 신학공부를 시작하였고, 후에 ‘희망의 신학’을 세

상에 내놓았다. 1967년 뉴욕 타임즈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1960년대 ‘신 죽음의 신학’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신학이라고 평가하였다.

몰트만에 따르면, 야훼 하나님은 미래에 계시면서 현실로 오셔서 현실을 변혁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미래에 계시면서 아브라함의 현실인 ‘갈대아 우르’로 치고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의 현실을 혁신하시는 하나님이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면서 사사시대를 열어 가신다. **여기에서도 야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미래에서 모세와 히브리인들의 현실로 치고 들어오시면서 그들의 현실을 변혁하는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은 아니었고,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였던 히브리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탈출과 동시에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당장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바람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기나긴 여정일 수 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나긴 계단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

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는 아브라함의 호소는 ‘복의 근원’이라는 미래의 지평에서 읽어갈 때 복의 근원의 과정으로 읽어갈 수 있다. 출애굽 이후 40 여 년에 걸친 굶주림과 유혹의 광야생활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미래의 지평에서 읽어갈 때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으로 읽어갈 수 있다. 갈대아 우르라는 현실은 복의 근원의 지평에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라는 현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지평에서 혁신과 변혁의 대상이 된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오늘의 지평에서만 읽어간다면 하늘이 주는 재앙이고, 저주이다. 그러나 미래의 지평에서 읽어간다면, 희망일 수 있다. 야훼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유 없는 고난은 과거나 미래와의 연관성에서 생각한다면 ‘이유 있는 고난’이거나 ‘뜻이 있는 고난’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불의는 과거와 미래와의 관계성에서 파악한다면, 새로운 세상을 위한 진통일 수 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오늘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나 내일의 지평, 부활의 지평과의 연속성에서 십자가를 읽어간다면, 십자가의 도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신 죽음의 신학자들은 신의 부재와 신의 죽음을 선언하였지만, 그들의 눈은 현실과 현재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몰트만의 눈은 미래에서 현재로 움직이며 현실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변혁과 혁신의 진통으로 읽어간다. 미래의 지평에서 오늘을 본다면, 오늘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과 모순이 모습을 드러내고, 오늘의 모순을 혁신한다면 오늘은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바벨론 포로라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던져 주시는 해법은 ‘오늘’이었다. 오늘의 현실인 유배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정

착하면서 딸들과 아들들을 놓고 그곳에서 변성하라고 하시며, 원수의 땅인 바벨론이 발전하도록 기도하라고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 해법은 ‘오늘’에 마침표가 있지 않다. 바로 ‘내일의 희망 안에서의 오늘’ 이해법이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다시 고국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일 또는 미래의 빛 안에서 읽어가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본다면 재앙이지만, 미래의 눈으로 본다면 희망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라는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였듯이, 한국 교회는 성장의 정상에 올라갔다가 이제는 쉬지 않고 하산하고 있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과거에 대한 동경이 아니고 현실에 대한 도피도 아니고,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돌파하라는 것이었듯이, 한국 교회도 침체라는 현실을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한다. 시인 김시탁의 ‘다시 사랑을 위하여’라는 시다.

“다 젖고 나면 더 젖을 게 없어/ 그때부터 열이 난다는 걸/ 젖어본 사람은 안다/ 덜 젖으려고 발버둥칠수록/ 이미 젖은 것들이 채 젖지 못한 것들을/ 껴안고 뒹굴어 결국 다 젖고 만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안다/비오는 날은 비를 맞고/ 바람 부는 날은 바람을 맞듯이/ 받아들이며 껴안으며 사는 삶이/ 얼마나 넉넉하고 건강한지를/ 비탈길을 걸어본 사람은 다 안다...”

다시 새로운 사랑을 위하여 내리는 비를 피하기보다는 다 젖을 때까지 맞아야 한다. 내리는 비와 부는 바람을 받아들이며 껴안는 사람이 새로운 사랑

을 만날 수 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은 유배지라는 오늘의 폭풍우를 받아들이고 껴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친구 목사의 취임예배 시 은퇴하신 한 교수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성장의 신드롬을 버리고, 지역의 아픔을 발견하는 목사와 교회가 되십시오. 1960~70년대 한국에서는 교회간판만 걸어도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 교회의 성장은 멈추었고, 수평이동을 통한 대형교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성장에 대한 꿈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장의 신드롬을 버리고, 지역의 아픔을 듣고, 발견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지역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였습니 다. 이제는 지역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아픔을 듣고, 치유하는 독특한 언어와 색깔을 만들어가는 목회, 교회가 되십시오.” 이제 한국 교회는 제자리에 있으면서 말하는 교회에서 찾아가서 듣는 교회로 혁신 해야 한다는 예언자의 소리로 다가온다.

오늘의 혁신은 오늘의 위기를 끌어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 끌어안음은 오늘을 돌파하기 위함이므로 내일의 빛 안에서 오늘을 보는 것이다. 미래학자 최준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기술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기술, 경제, 환경, 사회, 법, 정치, 제도, 종교 등의 사건과 이슈들은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 낼 뿐이다.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최준식은 강조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말한다. “내가 미래를 만들면 미래는 나에게 행복과 부를 선물로 주지만, 미래가 나를 만들면 나에게 미래는 두려움과 고통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부정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의 혁신이 내일의 희망이다. 그리고 내일의 희망이 오늘을 혁신한다.’ 기독교인들은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종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현재와 종말 사이에는 미래

가 있다. 종말을 지향하면서도 미래의 빛에서 오늘을 읽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 감리교회 평신도들이 유배지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고 바벨론이 번성하기를 기도하라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신 죽음의 신학자들이 오늘의 지평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였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 몰트만이 희망의 빛 안에서 오늘의 고난과 부조리를 읽어가는 점을 방향타로 삼아야 한다. 내일의 희망 안에서 오늘을 혁신하는 존 웨슬리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소망한다.

성화 없는 희망은 없다

열왕기하 23:24,25



김영복 목사

서울연회 도봉지방 갈릴리교회 담임

감리교회 슬로건이 마음에 든다.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혁신 없는 희망은 없다. 여기서 혁신(革新, Innovation)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것이다.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열왕기하 23장에서 우리는 ‘거룩한 혁신’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세워 나가는 한 인물을 발견한다. 그가 바로 ‘요시야’이다. 솔로몬 이후 다윗 왕조는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만다.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한 북 왕국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 유다가 그것이다.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의문을 품게 된다.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까? 그리고 왜 분열된 왕국이 결국 모두 비참하게 몰락하였을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한 마디로 단정하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혁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솔로몬의 최후는 참으로 안타깝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여인들을 사랑함으

로써 솔로몬의 말년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왕상 11:1,2)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었는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과 몰록, 그리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따라 섬기게 하였다. 그 결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말았다.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는 분열왕국 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열왕들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인물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여로보암’은 악의 축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 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왕하 15:24) 분열 이후 2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왜곡된 풍속과 관습에 사로잡혀 전혀 거룩한 변화와 개혁을 단행하지 못했던 북 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호세아 시대에 앗수르에 의해서 몰락되고 만다.

남 유다 역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 휘청거리는 때에, 요시아란 인물이 혜성처럼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다. 요시아는 8세에 보위에 올라 31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이전의 열왕들과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왕하 22:2). 참으로 놀라운 인물이었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다. 그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온 유다 백성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왕하 22:13)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참회한 후, 과감하게 나라의 ‘거룩한 혁신’을 단행한다. 오늘의 말씀은 그 일부분이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왕하 23:24,25)

그러나 요시야의 ‘거룩한 혁신’이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요시야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시야 이후 남 유다 왕으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등극하였는데, 그들 모두 요시야와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인물들이었다. 결국 시드기야 시대에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참담하게 찢김 당하고 만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낫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 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왕하 25:7, 9~12)

참으로 참담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의 거룩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결단코 내

일의 희망은 있을 수 없다. 북 왕국 이스라엘이나 남 유다의 종말이 우리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 20년 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말했던 삼성 이근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생각난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삼성은 연매출 400조원, 36만9,000명의 직원과 74개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삼성이 이처럼 오늘의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서 가능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요시야의 ‘거룩한 혁신’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이다. 교회론적으로 볼 때, 오늘의 감리교회와 한국 교회는 두 가지 큰 위기 속에 봉착해 있다. 하나는 기독교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다움’을 상실한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교회적 사명을 상실한 ‘상관성의 위기’(Relevance Crisis)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와 한국 교회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룩한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한 세대의 타락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사회적 전이(social transmission)를 갖게 된다.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거룩한 혁신’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내일 결코 그 어떤 희망의 미래도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다. 거룩한 혁신 없는 미래의 희망은 거짓된 희망이다. 진정한 희망은 철저한 자기 뉘우침과 거룩한 자기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감리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거룩한 혁신’을 성화(聖化, Sanctification)의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갔다. 18세기 영국은 실로 피의 혁명을 부르는 무규범의 시대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내적 성화’(Inner Sanctification)와 ‘외적 성화’(Outer Sanctification)를 통한 거룩한 혁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다. 성화 없는 희망은 없다.

오늘 우리는 평신도 주일을 보내고 있다. 평신도를 나타내는 헬라어 ‘라이코스’(laikos)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다. 이 말은 어떤 특정 그룹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광의적 의미에서 볼 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다. 즉 평신도라는 말은 본래 선택받은 자, 성도, 제자, 혹은 하나님의 몸인 믿는 자의 공동체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주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세상은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교회는 평신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

지금보다 더 절박하고 더 암울했던 시절, 치열한 자기 혁신을 통해서 의료 선교와 학원선교, 그리고 민족 민중 계몽운동과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개하며 한국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던 자랑스러운 감리교 평신도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와 한국 근대 여성의 선구자 김활란, 그리고 한국의 선각자 윤치호와 인간 상록수 최용신, 그리고 한국의 잔 다르크 유관순과 최초의 여선교사 최나오미, 그리고 수많은 이름없는 초기 감리교 전도부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절망’이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절망을 ‘희망에 저항하는 죄’로 단죄하였다. 아직 꺼지지 않은 ‘거룩한 혁신’의 불꽃이 살아 있어서 한국 감리교회와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 바로 지금이 우리 감리회 평신도들이 요시아와 같은 ‘거룩한 혁신’의 불꽃들이 되어,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갈 때이다.

1. 평신도기도주간 묵상문



나형석 목사
협성대학교 교수, 예배학

평신도주일(6월 7일)을 맞이하는 평신도 기도주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평신도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5년 평신도 주간 기도문은 내가 받은 세례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드리 는 세례재확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의 주제는 세례 순서를 따릅니다.

{ 평신도 기도주간 : 6월 1일(월) ~ 6월 6일(토) }

6월 1일(월)



부르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사람의 땅 그 죽음의 그늘에 저희들 앉아 있을 때 측은히 여기사 부르셨나이다. 돼지와 함께 먹고 마실 때 저희를 부르셨나이다. 먼지 중에 있을 때 등불 들고 허리 굽혀 저희를 부르셨나이다. 길 잃은 양으로 아골 골짜기 헤맬 때 저희를 부르셨나이다. 잠들어 있을 때 새벽이슬 맞으며 영혼의 문 밖에서 저희 이름 부르셨나이다. 주여! 당신께서는 전심으로 저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셨나이다.

그 부르심으로 인해 저희의 영혼 깨어나 그물과 배 버리고 떠났나이다. 삼일 길 걸어 세례의 구름과 불기둥 만나고 이제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나이다. 세례를 통한 당신의 부르심으로 인해 저희들 이 죽음의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맛보며 살게 되었나이다. 이 일로 인해 당신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2일(화)



옷을 벗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을 도모하지 말라(로마서 13:14)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마태복음 22:12)

주님! 세상이 입혀주었고 저희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옷들과 장신구들을 세례를 통해 다 벗기셨나이다. 우리의 육체적 자랑, 교만, 세상이 내게 매겨 준 삶의 신분과 가격표 다 벗기셨나이다. 그 옷과 함께 주어졌던 거짓 기쁨과 슬픔, 근거 없는 자랑과 열등감 다 벗기셨나이다. 심판의 불 견디지 못하고 영생으로 가는 길 될 수 없는 모든 것들 다 벗기셨나이다. 죽음의 모양과 향겨려주고 거짓 위로를 주었던 수의 다 벗기셨나이다.

그리고 저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히셨나이다. 양털보다 정한 그리스도로 저희를 입히셨나이다. 첫 창조의 날에 그러하셨듯 그리스도를 예복으로 입은 저희들 보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당신 나라 함께 거니셨으며 저희를 성찬상에 초대하고 앉히사 당신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셨나이다. 세례를 통해 행하신 이 놀랍고 기이한 사역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3일(수)



마귀 부인 否認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3)

주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신 후 세상을 섬기는 사역 시작하셨나이다. 그때 마귀가 광야에서 떡, 기적,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힘을 구원의 길로 삼으라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시험했나이다. 그분이 십자가 죽음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나려 할 때 베드로를 통해 그 길을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시험했나이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대중의 입을 빌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함으로써 그분을 시험했나이다.

주님!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저희에게도 그리스도를 시험하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나이다. 마귀를 분별하고 쫓아 내시던 아들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위에서 있게 하옵소서. 그분의 십자가에 끝까지 달려 있어 그분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4일(목)



그리스도를 좇음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마가복음 2:14)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동일한 본체이시나 사랑으로 자기를
비워 저희의 썩어질 몸을 입으셨나이다. 그리고 그 죽음의 몸으로 눈 먼 자와
문둥병자를 치유하셨나이다. 또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으며, 귀신들린 자
를 정하게 하시고, 오천 명을 먹이셨나이다. 아버지,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사랑의 삶을 통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영화로
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복음을 확증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신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
셨으며 자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당신께 갈 자가 없다 하셨나이다. 하오니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저희들 능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거룩한 사랑
의 길 걷게 하시고 저희의 몸 영화롭게 되어 당신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5일(금)



성령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요한복음 20:22)

아버지 하나님. 세례의 물로 저희를 당신의 이미지 따라 빚으시고 성령 불
어 넣으사 생령으로 만드셨나이다. 세례 받던 날 당신의 아들께서는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저희에게 보여주시며 숨을 내쉬어 성령을 불어 넣으셨나
이다. 세례 때 오순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와 함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나이다. 세례 때 하늘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녀라 증거해 주시고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을 내려 주셨나이다. 옛 예언자에게
약속하신대로 그렇게 저희에게 새로운 영, 성령을 주셨나이다.

성령이여 저희를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옵소서. 아들의 거룩한 몸 되
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한 아들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사제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의 아픔 지고 아버지 앞에서 중보기도하게 하옵
소서. 왕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힘을 다해 세상 섬기게 하옵소서. 예언자 그
리스도의 몸으로 진리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맛보는 거룩한 삶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
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
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누가복음 10:27~28)

사랑의 법을 행하면 살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은 본질이 사랑이시니 저희가
당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폭과 깊이와 넓이만큼 당신과 생명을 알고 맛보게 될
줄 믿나이다. 생명에 이르는 법이 이렇게 은총의 선물로서 계시되었으나 죄로
인해 저희들 미움과 다툼과 무관심의 무덤에 누워 있었나이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 저희 불러 주시고, 죄의 옷 벗기셨으며, 마귀를 부인하
게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 주셨나이다. 그의
피로 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성령의 전 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성령의 힘
으로 당신께서 명하신 사랑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나이다. 은총으로 율법을
행하는 저희의 얼굴과 삶에 당신의 형상 회복되어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세상으로 당신의 영광 찬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예배문

평신도주일 공동예배

집례자 : 장로 대표

[하나님께로 모임]

- 전 주 만주자
- * 입 레 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평신도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 * 경배찬송 9장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다함께
- * 말씀교독 시편4 (교독문 3번) 다함께
- * 삼위영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다함께
- 오늘의 기도 권사 대표
- 주님의 기도 다함께
- 기도응답송 찬양대

[말씀의 선포]

- 성경봉독 (1) 구약의 말씀 : 예레미야 29:11 집사 대표(여)
- (2) 신약의 말씀 : 골로새서 1:23 집사 대표(남)
- (3) 오늘의 말씀 : () 설교자

찬 양	찬양대
설 교	설교자

[감사와 응답]

합심기도	말은 이
------	------

(예배자료로 함께 제공된 주간 기도문의 요일별 주제와 개 교회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1. 세계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남선교회 회장)
2. 감리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위하여 (여선교회 회장)
3. 평신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청장년선교회 회장)

신앙고백	다함께
찬 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다함께
* 봉 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기도	말은 이
평화의 인사	다함께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으로의 파송]

교회소식	집례자
* 찬 송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다함께
* 파송의 말씀	다함께

집례자 :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 축 도	목 사
후 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선다)

1. 평신도주일 성수 방법

1) 평신도주간과 평신도주일 성수로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소명의식을 새롭게 인식하여 평신도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평신도 단체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우리 감리교회의 특별한 신앙실천운동입니다.

평신도주일 성수를 통하여 평신도들이 교회 행사의 실제적인 주관자가 되어 나누고 섬기는 신앙 실천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금년 평신도주일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기도를 통하여 웨슬리의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과 섬김의 주간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3) 방법

가. 평신도주일 1주 전 평신도주간(6월 첫째 주: 6.1~6.6)에 자료집에 수록한 ‘묵상문’으로 세례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리교회와 내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기도주간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일-5.31-에 “평신도주간 기도문”을 전 교인에게 배부하여 기도주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 개체교회는 1개월 전에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각 기관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개체교회에 합당한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실천항목 선정 및 기관

별 담당을 정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신앙, 실천을 강조하는 평신도주일 성수의 의미를 2~3주 전부터 후보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합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있어야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다. 평신도주일·주간행사는 지방 사회평신도부 목적사업에 초점을 두되,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회봉사 사업이나 평신도 중점 사업과 자료에 예시된 사업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실시하십시오.

4) 평신도주일헌금

개체교회에서 평신도주일을 성수하고 드린 헌금은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취합하여

- ① 70%는 지방 사회평신도부 목적사업, 지방 평신도 및 사회봉사 사업, 기타 지방 협력 사업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 ② 30%는 본부의 평신도운동 활성화 사업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도록 감리회 본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주일헌금

송금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4211
우리은행 1005-201-023587
농 협 1277-17-001024 (예금주:기독교대한감리회)

5)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첨부자료의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7월 31일까지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행사일지는 별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① 팩스 : 02-399-4350 ② e-mail : itd30@daum.net
- ③ 우편 : 110-73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2.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행사주관	프로그램	방 법
교회	평신도 기도주간 6/1(월) ~ 6/6(토)	· 평신도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는다. · 평신도주일 1주 전 주일에 전 교인에게 '주간 기도문'을 배부한다. · 요일별 기도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평신도주일 예배 6월 7일	· <평신도주일 자료집>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린다. · 예배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한다.
	미자립교회 방문	· 특별헌금이나 기금으로 한다.(목적사업) · 전도와 지역봉사를 함께 겸하면 더욱 좋다. · 방문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본다.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	· 생활 속의 신앙 실천운동이 되게 한다.
	'생명나눔운동' 참여	· 장기기증 서약식을 갖는다. · 전교인 헌혈을 한다.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참여	· '평신도재능기부은행'(www.kmcgiftbank.or.kr)에 재능을 등록 또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회평신도국으로 보낸다. · 재능기부사업에 후원한다.
	'착한소비 365' 참여	· 사회적기업 등 착한공급자에게 판로와 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는 착한소비 365운동에 참여한다. · 착한기업들의 제품을 온라인쇼핑몰(www.더착한소비.com)에서 구매한다.
지방	평신도주일 연합예배	· 연합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을 찾고, 미리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 반드시 감리사와 교역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얻어야 한다. ·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을 다짐하는 순서를 갖는다. · 지방 감리교 희망봉사단 발대식을 같이 한다.
	평신도주일 교환예배	· 강단교류, 외부강사 초빙, 열린 예배(연극, 위십 댄스 등) · 목적(특별) 헌금을 드린다. · 예배 순서에 참여한다.
	평신도상 수여	· 사회봉사상, 효자효부상 등 · 연합예배 시 시상하는 것이 좋고, 공정하게 선정한다. · 교회에 의뢰하여 신청을 받고, 상패와 부상을 준비한다.
	착한 소비장터	· 지방의 감리교회가 연합하여 '착한소비장터'를 연다.

VII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평신도의 다양한 재능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섬기고 함께 나누는 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재능기부운동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즉 개인이 가진 전문지식과 경험, 은사 등을 섬김과 나눔으로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운동입니다.

● 재능기부운동의 목적

감리교회 150만 평신도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모아 인력뱅크를 구축하며, 이를 인적·영적·물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국내외 선교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함은 물론 감리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① 재능기부자들의 인력뱅크를 구축하여 선교와 봉사가 필요한 곳에 연결한다.
- ② 분야별로 조직화하여 평신도 리더를 세워 자발적인 헌신 봉사를 확산시킨다.
- ③ 맞춤형 선교사역과 연결하여 선교비전을 갖게 하며 평신도자원을 동력화하여 교회 부흥에 이바지한다.
- ④ 대사회적인 봉사활동에 감리교회 이름으로 참여하여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한다.
- ⑤ 국내·외 재능기부 시범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참여케 한다.

● 재능을 기부하면?

1. 재능기부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프로보노”로 활동하게 되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국내·외에 속한 교회, 이웃과 사회, 그리고 선교지역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 본부 사회평신도국은 재능기부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소식과 공지사항을 수시로 알리고, 또한 기부한 재능이 적시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부자와 수요자를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재능을 기부하려면?

1. 인터넷 : 재능기부은행 홈페이지(kmcgiftbank.or.kr)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과 재능을 등록하면 됩니다.
2. 신청서 : 재능기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부 사회평신도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재능이 은행에 저축되어 재능기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재능기부 접수 방법

1. 홈페이지 : 

재능기부은행 홈페이지(kmcgiftbank.or.kr) 접속 한 후
‘회원가입’ 및 ‘재능기부은행 등록하기’ 클릭

2. 신청서 이메일 접수 : itd30@daum.net

[신청서 다운로드 : www.kmc.or.kr 사회평신도국 자료실]

3. 전화 : 02.399.4349 [Fax : 02.399.4350]

4. 우편물 : 110-73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사회평신도국

● 재능기부 활동 프로세스



평신도 재능기부은행 등록신청서 양식

지 원 자 성 명	한 글		영 문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결 혼				
연 락 처	집				인터넷폰				
	휴대폰				E-mail				
주 소 (우편물 수령지)									
교 회 활 동	소 속 교 회	연 회		직 분		최 종 학 령 (√표)	고졸() 초대졸()		
		지 방		교 회 봉 사 부 서			대졸() 대학원()		
		교 회					대학원 이상()		
						전 공			
지 원 분 야 [√표] (중복 가능)	의 료	교 육	건 축	IT/컴퓨터	기 술 분 야			행 정	기 타
					공 업	농 업	상 업	사 무 행 정	중 보 기 도
	후 원			문 화/예 술/취 미 교 실 과 목					
	재 정	물 자	인 력 자 원	연 극 영 화	음 악	미 술	레 크 레 이 션	스 포 츠	
* 상기 재능기부 항목 외에 기부 가능 재능분야를 쓰세요.									
지 원 분 야 경 력 사 항	* 구체적인 내용을 쓰세요.								
특 기 사 항 (자격증)									

위와 같이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모든 열매의 시작은 씨앗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장기기증,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택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윤전면허증 장기기증 희망의사표시제 안내



장기기증(장기이식)은 운전면허증에 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위치가 국립장기기식 관리위원회 등록되어, 누구나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 재발급 또는 운전할 때 이체와 같이 표기합니다. (17세이상) 수증자 동의 후가비환 없음)

면허증 발급시 등록 여부를 창구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기증 절차안내

장기기증 희망등록 ▶ 등록증(면허증) 휴대 ▶ 장기기증 등록 사실을 가족 및 친지들에게 알릴 ▶ 기증신청(의사 및 사망) 발생시 1588-0692로 연락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T. 1588-0692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장기기증(희망등록)과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캠페인은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함께 진행 합니다.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은 순교한 사람의 실전을 통해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감리교 목회자들이 모여 설립한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헌혈을 비롯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지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수동 35-13 3F | Tel 1588-0692 | Fax 02-2618-7179 | Homepage <http://kals.or.kr>



◆ 장기기증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택입니다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은 숭고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감리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헌혈을 비롯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 각막이식 수술비 및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지원 캠페인을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과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 법 인 명 :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
- 주요사업 : 장기기증자 모집 및 관리, 각막이식 수술비 및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지원, 쉼터 운영
- 홈페이지 : <http://KALS.or.kr>
- 전자우편 : donation2001@naver.com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35-13 3층
- 대표전화 : 1588-0692
- 팩 스 : 02-2618-7179

※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 ‘생명의 빛’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함께 ‘사순절 생명나눔 선포식’을 갖고, 장기기증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사회평신도국과 함께 전국 11개 연회를 중심으로 장기기증 인식 개선 교육 및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업내용 : 장기기증 인식개선 교육 및 희망등록 캠페인
각막이식 수술비 모금 및 지원 캠페인 등
장기기증 서약식 등
- 진행일정 : 사회평신도국, 연회, 지방, 개체교회와 세부일정 협의 후 진행함
- 관련문의 :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 조정진 목사(☎ 010-3899-0126)

◆ 각막(안구) 기증으로 '생명의 빛'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막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1,682명입니다. 대기자 통계가 비교적 정확하게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1,907명부터 계산해 보면, 매년 각막 이식 대기자는 200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각막 이식 수술은 최근 연간 600여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구(각막) 기증은 기증자가 사망 후에 기증할 수 있으므로, 기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거의 없고 또한 사후 화장 비율이 80%를 넘는 현실에 반해, 각막 기증이 오히려 감소하고 그로인해 이식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 사업내용 : 시각 장애인에 대한 각막 이식 수술비 지원 및 이식 절차 지원
- 지원내용 : 각막 이식자 1인에게 검사비 및 수술비 최대 300만원 지원
- 관련문의 :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 사무국(☎1588-0692)

◆ 헌혈 및 장기기증 안내

■ 헌혈운동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 혈액원과 연계한 헌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사후 각막 기증

각막은 우리 눈의 맨 앞쪽에 위치한 투명한 조직으로 안구를 보호하고 빛을 받아 시신경에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각막기증은 시력과 무관하며, 80세까지 전염성 질환이 없으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콘택트 렌즈 형태의 각막만을 적출하기 때문에 시신의 외형은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약 20만 명의 시각장애인들 중 2만여 명은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이식수술을 받는 사람이 200여 명에 불과할 만큼 각막 기증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뇌사 시 장기기증

뇌사는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와 외상으로 인해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 시 가족회의 등을 통해 기증의사를 밝히면, 각막을 비롯한 심장, 간장, 폐장, 신장 등의 장기를 적출하여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사후 조직기증

장기 이외에도 뼈, 연골, 피부, 인대, 심장판막, 혈관 등 신체의 일부 요소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사후 조직기증을 통해 화상 환자들의 피부이식,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해 조직의 기능적 장애를 입은 환자 및 중도 장애인의 이식 수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 절차

장기기증 희망 등록 → 등록증(면허증) 휴대 → 장기기증 등록 사실을 가족 및 친지들에게 통보 → 기증상황 발생 시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에게 연락

■ 장기기증 의사표시 제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시,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 의사가 표기되며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됩니다.

Ⅸ 감리교회 착한소비 3·6·5 운동

“진정한 교회, 착한 그리스도인”

◆ 착한소비란?

단 하나의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생산과정이나 이익금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기업의 생산품을 구입하거나, 혹은 제품 자체에 친환경, 공정 무역 등의 윤리적 가치를 담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감리교회 착한소비 3·6·5 운동은?

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신앙인이자 동시에 소비자”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책임 있는 소비를 해야 할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경상지출 비용 중 일부가 착한소비로 전환될 경우,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 골목상권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경제 전반에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착한소비 운동의 신앙적 근거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웃의 필요를 섬기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 하고 있습니다(행 4:32, 신 24:21, 잠 19:17). 이는 ‘교회 내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전반에 관한 명령으로, 모든 감리교인은 사회·경제 상황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각자에게 주어진 재정과 재능을 통하여 선한 섬김을 적극 실천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범으로,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교회기반의 가내공업을 일으켜 성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들의

생계를 해결하도록 하였고,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업과 상품을 확장시켜가는 시장들’을 확보하고, 이러한 시장 확대를 통해 ‘고용주가 더 많은 고용인을 쓰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주장하였습니다.

2015년을 살아가는 감리교회 역시 현 세대가 당면한 여러가지 사회·경제 문제들을 묵과하지 않고, 이를 풀어내기 위해 “착한공급자와 착한소비자의 만남을 통해 사회·경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소비 3·6·5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I. 감리교회의 착한소비

1. 감리교인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감리교인(착한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착한제품 구매는 경제적 효과로 연결됩니다.

1단계 : 착한공급자들의 매출 증가와 기업 안정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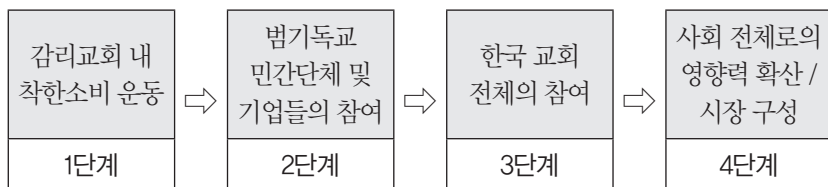
2단계 : 지속적인 구매로 인해 사회 내에 건강한 공급자-소비자 관계 형성

3단계 : 한국 경제의 시장구조 및 소비문화의 거시적 변화

4단계 : 감리교회의 지역사회 발전 및 통합에 기여하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와 영향력 증대

5단계 : 해외 선교지의 사회경제적 사업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

2. 감리교회로부터 일반시장까지



Ⅲ. 착한소비 3·6·5 운동 체계

기독교언론의 2015년 1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신도들이 뽑은 신년 기독교계 키워드 1위는 ‘지역사회’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교회는 ‘삶의 자리’, ‘일상성’,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기반하여, 이하의 “착한소비 3·6·5 운동체계”를 진행합니다.

1. 존 웨슬리의 경제 3원칙

- 1) 열심히 벌어라.
- 2)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 3)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주어라.

2. 착한소비 실천을 위한 6가지 체크리스트

- 1)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섬김 차원에서,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및 지역발전(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 공헌하기 위한 실천하겠습니다.
- 2) 교회 차원에서, 연 1회 이상 성도들에게 기독교 경제윤리관, 교회중심의 사회적경제(사회복지, 지역재생, 기업 활동 등), 성경적 착한소비에 관해 교육 활동을 합니다.
- 3) 우리 교회 총 지출의 1/10에 해당하는 규모를 “착한소비365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기/비정기적으로 착한공급자들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겠습니다.
- 4) 연 1회 이상, 지역주민들을 섬기는 마을축제 혹은 바자회(장터)를 열어, 이웃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을 조건 없이 섬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 5) 성도 개인의 차원에서, 월수입의 5%를 구별하여 ‘착한소비 가계부와 통장’을 만들어 이용하여, 가정 내 생필품-식품 구입 시 착한소비를 실천합니다.
- 6) 지역 내 비영리단체(NGO) 가운데 ‘차세대’, ‘탈북민-통일’, ‘사회적 경제’를 위해 애쓰는 한 곳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후원(재정, 공간, 일손, 재능 등)하겠습니다.

3. 지역사회를 섬기는 착한교회 5대 조건

- 1) 교회와 성도들의 지역사회 필요에 대한 분명한 인식
- 2)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 3) 영적 사명 의식을 가진 자들의 강력한 섬김과 실천
- 4)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책임 있는 소비 활동
- 5) 사회복지 및 지역 재생을 위한 이웃 교회들의 연대

IV. 감리교회 착한소비 3·6·5 운동 참여 방법

1. 착한소비 교육세미나 신청

- 교회별로 “착한소비 헌신예배”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성도들을 교육함.

※ 감리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강사 지원이 가능함.

- 착한소비 테마를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 가능함.
- 교회 내 노인대학, 청년교회 프로그램, 청소년교육 등 세대별 특성화교육 시행.

2. 온라인쇼핑몰 “THE착한소비” 이용

- 감리교회 사회적경제 공급자 및 범기독교 공공시장인 “THE착한소비” 쇼핑몰을 이용함.
- 인터넷 주소 : www.더착한소비.com (회원가입 필수)

3. 3·6·5 장터 유치

- 지역교회에서 3·6·5장터를 유치함으로, 교회가 기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상품이 판매되도록 다리를 놓고, 한편으로 마을주민들과의 접촉 소통하는 기회를 얻음.
- 연락처 : 이찬욱 팀장 (010-8911-5135)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선언문

기독교대한감리회 150만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1.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받들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3.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4.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자연과 생명체를 사랑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환경보호에 헌신한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1. 현수막 견본

2015년도 주제 :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

제37회

평 신 도 주 일

기간 : 2015. 6. 1 ~ 6. 7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주최 : ○○연회 ○○지방 ○○교회

2. 헌금봉투 견본

제 37회

평신도주일 헌금

2015년 6월 7일

■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하여

■ 지방사회평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 교회	
봉헌액	
이 름	

3. 포스터 (평신도주일)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

평신도 기도주간
6.1(월) ~ 6.6(토)

6.1(월) 부르심
6.2(화) 옷을벗음
6.3(수) 마귀부인^{否認}
6.4(목) 그리스도를 좇음
6.5(금) 성령
6.6(토) 은혜로 맛보는
거룩한 삶

제37회 2015. 6. 7
평신도주일

■ 주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 주최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4.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수신: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제목 : 2015년 제37회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1. 성수교회 현황

[illegible]

■ 지방 교회 수: 교회 ■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린 교회 수: 교회

2. 지방 및 개체교회 평신도주일 주요 행사

♥ 평신도주일헌금송금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4211

(예금주:기독교대한감리회) 우리은행 1005-201-023587

농협 1277-17-001024

_____연회 _____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인)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발 행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발행일 2015년 4월 28일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10-73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 02-399-4346~8 Fax. 399-4350

비매품

.....